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후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포기

김영문 브루노 신부

내 판단이 확실했고
 확고한 결정을 내렸는데
 남들 말에 의해 이것을 포기하고 단념하기란 쉽지 않다

의심과 비난의 말을 들을 때마다
 결정이 흔들리고
 고민하면서도 더 고집스럽게 변해가는 자신
 하느님을 위한 일에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서글퍼지고 감정까지 일어나 마음 괴롭다

이때에 나의 확신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고 모두 포기하자
 그동안 내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여기고
 지금은 모두 다 내놓고
 주님께 아예 내 뜻과는 다른 생각과 판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보자!

포기한 만큼 은혜로운 주님이
 당신 현존을 드러내시고
 확실하게 영혼을 깨우쳐 주신다
 나는 평화의 새 길로 나아가리라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12/03/2025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41,415

현재 참가 인원 -92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본당 설립 50주년 기금 모금 현황 (12/21/25 집계)

이용명, 최춘숙, 오면수, 이택래, 익명, 바텔구역, 사마미쉬 구역 모금액: \$7,200 총 모금액 누계: \$73,855

대림 제4주일 (12/21)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51명	80명	236명	158명	50명	575명

성가 안내 입당 성가: 114 예물 준비 성가: 112, 511 성체 성가: 165, 166 파견 성가: 113



카파도키아의 교부 대(大) 바실리오

325년 개최된 니체아 공의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천주 성부의 첫 피조물이며, 성부는 성자를 통해 성령을 창조하였다는 위계적인 성삼론을 펴던 아리우스의 주장을 이단으로 선포했다. 그의 의견은 성자와 성령의 천주성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교의 기본 교리인 성삼론과 구원론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단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 이단은 황제와 정치권의 비호를 받으며 세미 아리우스주의 등으로 변형되어 계속해서 교회 안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카파도키아의 3대 교부로 꼽히는 대(大) 바실리오(329~379)는 아리우스 이단에 맞서 니체아 공의회 결정 사항을 옹호하고 발전시킨 중요한 신학자다. 동방 교회 4대 교부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그는 이름 앞에 “대(Magnus)”라는 명칭이 붙을 만큼 학자로서 업적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바실리오는 카파도키아 체사레아 지역에서 태어났다. 처음에는 아버지에게서 수사학을 배웠다가 당시 일반 지식인들처럼 체사레아, 콘스탄티노플, 아테네 등지에서 수학했으며, 체사레아에 정착한 뒤 수사학 교사가 되었다. 교육자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356년 세례를 받고 “복음 정신에 따라 하느님께 전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하여 이집트, 팔레스티나, 메소포타미아 사막을 다니며 수도승들을 만나는 수행 생활을 했다.

358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재산을 청산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네오체사레아의 이리스 강변에서 수도생활을 시작했다. 이때 아테네에서 만났던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가 찾아와 수도생활에 합류하게 된다.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는 바실리오와 함께 카파도키아 3대 교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바실리오는 여기서 오리게네스의 저서에 심취하여 그레고리오와 함께 오리게네스의 작품에서 여러 구절을 뽑아 사화집 『필로칼리아』(Philokalia)를 공동으로 편찬했다. 체사레아



대주교 에우세비오의 설득에 따라 365년 사제품을 받은 바실리오는 이후 신자들이 복음 정신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지침으로 80개 항목의 『도덕집』(Moralia)을 펴내기도 했다. 370년 에우세비오가 사망하자 그 후임으로 대주교직에 오른 바실리오는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사목하며 신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바실리오는 교회 사회 활동을 선구적으로 개척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깊은 가난 속에서 제국이 부과하는 높은 세금에 시달리는 민중들을 보며, 또 고리대금업이 활개를 칠 만큼 황폐해진 사회 현실에 직면하여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앞에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것”, “모든 인격은 고귀하다는 것”, “탐욕과 축재를 제한하기 위해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 등을 주장하고 발전시켰다.

“바실리아데”라고 불리는 구빈 기관을 만들어 노인들과 환자들을 돌보는 체계를 갖춘 것은 매우 혁신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바실리오의 노력에 대해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다고 평했다. 이는 “복음

의 내적 충동으로 움직인 최초의 사회 활동가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바실리오의 면모를 드러낸다.

바실리오는 니체아 공의회 신앙의 수호자라는 업적 외에도 심각한 분열 현상을 겪고 있던 당시 상황 속에서 교회 일치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는 “로마 교회와의 일치 없이는 교회의 진정한 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신념으로 교황과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으며 오해를 풀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바실리오는 수도생활 전례 면에서도 탁월한 유산을 남겼다. 『성령론』 서두에서 새로운 영광송을 제시했으며, 서간 207편에서 새로운 전례 음악을 도입했던 그는 수도원들의 전례 기도를 개혁했다. 또한 「제1시경」과 「끝기도」를 시간 전례에 처음 도입했다. 그의 전례는 수도원을 통해 동방 교회와 이탈리아까지 널리 전파되었고, 987년에는 블라디미르 대공에 의해 러시아 정교회에도 도입되었다. 비잔틴 예식을 지키는 교회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바실리오 전례가 사순절과 연중 대축일급 전례에 사용되고 있다.

바실리오는 한편 자신의 수도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바실리오 규칙서』를 저술하여 수도승 공동체의 일상생활과 조직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이는 바실리오가 사제·주교 서품 후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수도자들이 질문했던 내용과 그에 대한 응답을 모아놓은 것으로, 「도덕집」, 「대수덕집」, 「소수덕집」 등이 포함된다. 모아진 응답들은 세 차례에 걸쳐 편집되었고, 편집 때마다 새로운 응답들이 첨가되어 여러 모음집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소수덕집」에는 수녀들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수도회 역사에서 최초로 명문화된 수녀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바실리오 규칙서』는 복음적 성격과 형제들의 상호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수도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는 규칙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바실리오는 “동방 교회 수도원 제도의 창시자”, “수도생활의 아버지”로 불린다.

공지 사항

1 미사 일정 안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12/31(수): 저녁 7:00
오전 10시 미사 없습니다.
- 26/1/1 (목): 오전 10:00
저녁 7시 미사 없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의무 대축일이므로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 및 성탄절을 맞아 12/28, 1/4(주일)에는 11:30 미사 및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26/1/3 (토): 성모 신심 미사(10시) 없습니다.

2 견진 성사 안내

2026/5/31(주일)에 견진성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연결된 필수 성사입니다.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않으신 모든 신자들은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 2026/01/25까지

3 교무금/ 기부금 납입 안내

2025년 교무금 정산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31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12/31)까지 납부하신 금액만 세금 보고 서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내년(2026/1/1 이후)에 납부하시는 금액은 2027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확대 사목 회의

아래와 같이 2025 확대 사목회의를 개최합니다.

- 일시: 12/28(주일) 낮 12:00
- 장소: 101호실
- 대상자: 사목회 분과별 회의 참석자 및 봉사자들

5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7/1/2025 - 8/31/2026
- 대상: 전신자

7 올드레아 월례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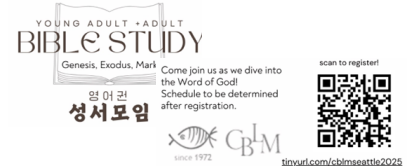
- 일시: 1/10(토) 오전 11:00
 - 장소: 101호 교리실
- 2026년 첫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꾸르실리타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8 2026년도 본당 달력

2026년도 본당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9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그룹 공부 신청

- 내용: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등
- 대상: 성경공부가 필요한 모든 청년, 영어권 포함
- 신청: 아래의 링크에서 등록 또는 본당 사무실에 문의
- 신청 마감: 2025년 12월 30일
- 링크: [Tinyurl.com/cblmseattle2025](https://tinyurl.com/cblmseattle2025)



10 2027 세계 청년대회(WYD)신청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전 세계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더욱 깊이하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석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참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자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에 한하여 최종 신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관심자 신청서 마감일: 2026년 2월 1일
- 신청서 파일 및 기타 문의: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입당송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제1독서.....집회 3,2-6.12-14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제2독서.....콜로 3,12-21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생활>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 알렐루야

복음.....마태2,13-15.19-23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우 리 들 의 정 성

[교무금] 이광재 박원규 오정연 곽노환 안창남 양성림 이천우 한정순 박재룡 양요한 박지영 김용현 이순욱 김경화 양미애 조희성 정부자 이운선 유상엽 최순기 장승연 김정희 박명환 안승근 박민수 김춘성 김종국 장호경 이정자 이정순 김태자 윤명진 박수익 조병근 김정옥 차상철 김창문 이상철 유경중

[교무금 Push Pay] 조성욱 전영건 안정희 구미경 김형근 성효진 유현주 윤성욱 김길수 박소영 오영주 **[주보 광고]** ACC 묘지

[감사헌금] 이재호 문헬렌 최카타리나 최시우 정순도 이명희 김미석 한씨니 이춘자 이정자 **[꽃 봉헌]** 김금숙 민들레 **[성소 후원회비]** 이명희

주일 헌금	교무금	교무금 PUSH PAY	감사 헌금	성탄 감사 헌금	2차 헌금	주보 광고	꽃 봉헌
\$7,413.00	\$11,510.00	\$4,365.40	\$980.00	\$50.00	\$223.00	\$260.00	\$500.00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윅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융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패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 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터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풀락 (떡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목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1/29/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2/21/26)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제5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2026년 1월 1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향하여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날에도 많은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이 오랜 인사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소 주님 부활 대축일 저녁에 하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21)라는 그분의 말씀은 그저 평화를 향한 바람이 아니라, 이 인사를 받는 이들에게 참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결과적으로 모든 현실에도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들의 후계자들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온 세상에 날마다 가장 조용한 변혁을 외칩니다. 로마 주교로 선출된 저녁부터 바로 저는 이 보편된 선포와 더불어 저의 인사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 곧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겸손하고 인내하는 평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평화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며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품어 안으시는 착한 목자이신(요한 10,11,16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인류를 갈라놓는 분열의 장벽들을 허무셨습니다(에페 2,14 참조). 그리스도의 현존, 그분의 선물과 그분의 승리는 인내로운 수많은 증인을 통하여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일이 이 세상에서 계속되고 우리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더욱 선명히 빛나게 됩니다.

어둠과 빛의 대비는 새 세상이 태어날 때의 산고를 묘사하는 성경의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련과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빛을 보고 그 빛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고유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살

아가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하는 부름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가닿고자 하는 부름입니다. 평화는 실재하며 우리 안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평화는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부드러운 힘을 가졌습니다. 평화는 폭력에 저항하고 폭력을 이깁니다. 평화는 영원의 숨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악에게는 “그만”이라고 외치지만 평화에게는 “영원히” 하고 속삭입니다. 부활하신 분께서 이러한 지평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제3차 세계 대전’이라고 부르신 것들 한가운데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이들은 이러한 확신에 힘입어 계속해서 어둠의 확산에 저항하고 밤의 파수꾼처럼 서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빛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둠과 공포로 일그러진 세상을 바라보는 편향되고 왜곡된 관점에 휩쓸리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희망이 없고 다른 이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며 하느님의 은총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담론들을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은 죄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언제나 인간의 마음 안에서 작용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 깊이 평화를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평화의 빛나는 온기를 주변에 전파할 수 있도록 평화와 떼어낼 수 없는 우정을 맺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성인은 그의 공동체에 전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평화로 인도하고 싶다면 여러분부터 평화를 지니십시오. 평화 안에서 굳건해지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불꽃을 전하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타오르는 불꽃을 지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지녔든 지니지 않았다고 느끼든, 우리 마음을 평화에 열려 있게 합시다!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또 우리의 손 닿는 곳 너머에 있다고 여

기기보다는 그 평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알아봅시다. 평화는 하나의 목표이기 이전에 실재이고 여정입니다. 평화가 폭풍우의 위협을 받는 작은 불꽃처럼 우리 안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위협에 놓일 때에도 우리는 평화를 보호해야 하며 평화를 증언해 온 이들의 이름과 이야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우리의 선택을 이끌고 밝히는 원칙입니다. 폐허만 남은 곳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곳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평화를 잊지 않은 이들을 발견합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이 두려움과 낙담 속에 모여 있는 곳에 오신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는 계속해서 그분 증인들의 목소리와 얼굴을 통해서 문과 장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러한 선물을 통하여 우리는 선을 기억하고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선을 다시 선택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은 평화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친밀한 신뢰를 나누시며 당신과 함께 있던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곧이어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요한 14,27). 그들의 고통과 공포는 분명 예수님께 곧 닥칠 폭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깊이 살펴보면, 복음서들은 제자들을 힘들게 하였던 것이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비폭력적인 응답은 그들 모두가, 그 가운데에서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익을 제기 하였던 길입니다. 그러나 스승께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이 길을 따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계속해서 불편함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분께서는 무력으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이들에게 단호히 되풀이하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요한 18,11; 참조: 마태 26,52).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은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 또한 비극적인 상황에 너무나 자주 연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이 새로움의 예언자적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관한 위대한 비유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인식을 지니고 자비로이 행동하도록 초대합니다(마태 25,31-46 참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폭력의 속임수에서 내적으로 자유롭게 된 형제자매들을 자기 곁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관한 위대한 비유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인식을 지니고 자비로이 행동하도록 초대합니다(마태 25,31-46 참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폭력의 속임수에서 내적으로 자유롭게 된 형제자매들을 자기 곁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평화를 향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세상 앞에서 종종 큰 무력감에 짓눌리곤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미 이 특별한 역설을 언급하였습니다. “평화를 소유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아마도 평화를 찬미하는 일이 더 어려울 것이다. 평화를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재능이 부족함을 깨닫고 올바른 생각과 단어를 신중히 고르며 고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얻기를 바란다면 평화는 우리 손 닿는 곳에 있어 노력하지 않고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평화를 먼 이상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평화가 부정되거나 심지어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올바른 생각들, 사려 깊은 말들, 그리고 평화가 가까이 왔다고 말할 역량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듯합니다. 평화가 사람들이 살아가고 가꾸며 지켜 나가는 현실이 되지 않을 때, 가정생활과 공공 생활 안에 공격성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시민과 통치자의 관계에서는 전쟁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공격에 대응하지 않으며 폭력에 폭력으로 되갚지 않는 것조차 결점으

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원칙을 훨씬 넘어서는 이러한 대립의 논리가 이제 세계 정치를 지배하며 날이 갈수록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 지도자가 군비 증액을 거듭 촉구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내리는 것을 외부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제시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군사력의 억제력, 특히 핵 억제력이라는 발상은 법과 정의와 신뢰가 아니라 공포와 무력 지배 위에 세워진 국가 간 관계의 비합리성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께서 이미 그 시대에 말씀하신 대로, “결국 사람들은 끊임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폭풍전야처럼 끔찍한 폭력이 덮쳐 올까 두려워합니다. 분명 그러한 무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초래할 끔찍한 살육과 파괴를 감히 책임지겠다는 자가 있으리라 믿기 어렵지만, 우발적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4년, 전 세계 군비 지출이 전년 대비 9.4% 증가하여 지난 10년간의 증가 추세를 이어가며 총 2조 7,180억 달러(전 세계 GDP의 2.5%)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5) 더욱이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대응은 재무장을 위한 막대한 경제적 투자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의 전환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20세기에 힘들게 얻은 교훈을 지키고 수많은 희생자를 잊지 않는 기억의 문화를 증진하기보다 학교와 대학교, 언론 매체에서 위기의식을 퍼뜨리고 무장 방어와 안보의 개념만 부추기는 조직적인 선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화의 원수들도 사랑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하며, 관계를 단절하거나 줄기차게 비난만 하지 말고 경청하며 다른 이들과 최대한 대화를 나누라고 권고하였습니다. 60년 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와 현대 세계의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다지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은 전쟁의 진화에 주목하였습니다. “현대 전쟁의 독특한 위험은, 현대식 과학 무기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범죄를 자행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종의 냉혹한 연쇄 반응으로 인간 의지가 극도의 참혹한 결정을 내리도록 충동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한자리에 모인 전 세계의 주

교들이 모든 사람에게, 특히 국가 통치자들과 군사 지도자들에게 하느님 앞에서 또 온 인류 앞에서 그토록 막중한 책임을 심사숙고하기를 간청한다.”)

공의회 교부들의 호소를 되새기고 대화가 모든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임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인공 지능의 군사적 활용이 무력 분쟁의 비극을 더욱 악화시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정치 군사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결정이 점점 더 기계에 ‘위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보호하는 인본주의의 법적 철학적 원칙들을 유례없이 파괴적으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적 경제 금융 이익의 극심한 편중이 국가들을 이러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실정을 규탄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비판적 사고를 일깨워야 합니다.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그러한 깨달음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망루와 방벽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도시들은 유력 가문들이 벌이는 피로 얼룩진 전쟁을 겪었고, 소외된 변방의 비참한 지역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프란치스코는 내면의 참평화를 얻었고 다른 이를 지배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에서 자유로웠으며, 스스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모든 이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계속 본받도록 부름받는 이야기로서,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곧 열린 마음과 복음적 겸손에서 비롯되는 평화를 위하여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선은 무기를 내려놓게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께서 어린아이가 되신 이유일 것입니다. 가장 깊이 내려가 죽은 이들의 거처에까지 다다르는 그 강생의 신비는 젊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시작되어 베들레헴의 구유 안에서 드러납니다. 천사들은 ‘땅에서는 평화’라고 노래하며, 무방비 상태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알립니다. 인간은 그분을 돌봄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루카 2,13-14 참조).

어린이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존재는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자녀들과 그처럼 연약한 다른 이들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것일지도 모릅니다(사도 2,37 참조).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선임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이 오래 가고 무엇이 덧없이 지나가는지, 무엇이 생명을 가져다주고 무엇이 죽음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더 명료하게 깨우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까닭에 우리에게는 흔히 자신의 한계를 부정하려 할 뿐만 아니라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가 선택한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할 때에만 이를 수 있는 ‘완전한 무장 해제’를 최초로 소리 높여 외친 교황은 성 요한 23세입니다. 그분께서는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전쟁 목적을 위한 군비 경쟁의 종지와 그 실제적 축소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 해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인간들의 마음에서 무기를 제거하고 전쟁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무장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 무기의 균형으로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로써 참된 평화가 확립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 올바른 이성적 외침이며,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고, 더욱 높은 유익을 인간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고통받는 인류를 위하여 종교가 해야 하는 본질적인 역할은 생각과 말까지도 무기로 삼고자 하는 유혹이 날로 자라나지 않게 막아내는 일입니다. 올바른 이성만이 아니라 위대한 영적 전통들도 우리에게 혈연이나 민족을 넘어설 것을,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거부하는 집단을 넘어설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결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음을 목격합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의 표현이 정치 투쟁의 장으로 끌어내려지고 국수주의를 축복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과 무장 투쟁을 정당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무엇보다 삶의 증언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



을 모욕하는 이러한 형태의 신성 모독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물론 평화의 길이고 전통과 문화 안에서 만남의 언어인 기도와 영성,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를 증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평화의 집’이 되어, 대화로써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고 정의를 실천하며 용서를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바람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 배려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목적 창의성을 통하여, 평화가 그저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것이 정치적 차원의 중요성을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공적 책임을 맡은 이들은 “전 세계 국가들이 더욱 인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숙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상호 신뢰, 조약의 성실성, 체결된 조약 의무 이행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초점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여기서 계약 이행의 성실성, 계약의 지속성, 계약의 풍요로운 결실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외교와 중재, 국제법이 맡은 무장 해제의 길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초국가적 기관의 정당성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 시기에, 어렵게 맺은 조약들을 위반하는 일이 늘어나 무장 해제를 위한 이 길이 너무도 자주 휘

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국제적 힘의 균형이 깨지는 가운데, 정의와 인간 존엄성의 위기는 경종을 울리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분쟁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이어가고 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희망을 살아 있게 하는 모든 영적, 문화적, 정치적 발의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세계화의] 원동력이 인간 의지와는 동떨어진 알 수 없는 비인간적 역량의 힘이나 구조의 산물인 양” “숙명론적으로 보는 시각”)의 확산에 맞서야 합니다. 앞서 제시하였듯, “사람들을 지배하고 무한히 승승장구하는 최고의 방법은 어떤 가치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절망의 씨를 뿌리고 끊임없는 불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략에 대항하여 시민 사회 안에서 자기 인식, 책임 있는 연대의 형태들, 비폭력적인 참여의 경험, 크고 작은 수준에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을 복돋워야 합니다. 레오 13세 교황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체험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려는 절실한 바람을 느낍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보다는 둘이 나으니 자신들의 노고에 대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준다. 그러나 외톨이가 넘어지면 그에게는 불행! 그를 일으켜 줄 다른 사람이 없다(코헬 4,9-10).’ 또한 ‘의좋은 형제는 요새와 같다’(잠언 18,19).”

이것이 바로 희망의 희년이 맺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희년은 수많은 사람이 순례자로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마음과 정신과 삶의 무장 해제를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분명 이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이사 2,4-5)

바티칸에서
2025년 12월 8일

레오 14세 교황